

#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Presidential SNS Records Management Method

최 두 원 (Doo-Won Choi)\*\*, 이 수 진 (Su-Jin Lee)\*\*\*  
윤 은 하 (Eun Ha Youn)\*\*\*\*, 오 효 정 (Hyo Jung Oh)\*\*\*\*\*

### 목 차

- |                                  |                              |
|----------------------------------|------------------------------|
| 1. 서론                            | 4.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 |
| 2. 이론적 배경                        | 5. 대통령 SNS 기록물 수집 및 관리방안 제안  |
| 3. 해외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사례조사 및 분석 | 6.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의 SNS 기록물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면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전·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사례와 SNS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SNS 기록물, 대통령 SNS 기록물, SNS 기록물 관리방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nagement status of domestic presidential SNS records and to propose a management plan. Thus, the researchers examined cases of SNS records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interviewed records officers in Presidential Archives, as well as conducted a status analysis of the presidential SNS records management status and the SNS accounts of former and current presid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current state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was analyzed. The researchers subsequently interviewed the staff in charge and found out wha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presidential SNS records management were. To solve the problem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NS records, a collection, management, and service plan was thus propo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discuss the management of the presidential SNS records and could be used as basic research of presidential SNS records.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records, SNS records, presidential SNS records, SNS records management status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6M3D7A1912703).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R1A2B1008000).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allregi@nate.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beulove1004@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eunhayoun@gmail.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ohj@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4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16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29-59,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2.02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이용이 활발하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SNS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SNS는 정치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19대 대선에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카페트 정치’<sup>1)</sup>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시작으로 대통령들이 SNS를 통해 재임 기간 동안 국민과 소통하며 정부 정책이나 각종 업무의 진행 절차와 같은 공적 영역을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 행적을 알리는 등 사적인 영역까지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7). 우리나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NS 기록물은 그 자체로 당대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록이며, 관리·보존되어야 할 기록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송주형, 2014). SNS가 기록관리 대상으로 주목받으며 SNS 기록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SNS 상에서 발신한 콘텐츠를 독창적인 아카이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재임 기간 동안의 오바마 정부가 생산한 SNS 상의 기록물을 수집·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

통령의 SNS 기록물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2017).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와 권한으로 볼 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 대통령이 말한 것, 대통령이 행동한 모든 것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정광훈, 남영준, 2012). 이러한 대통령의 위상에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웹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SNS를 소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생산한 SNS 기록물은 기록학적으로 독특한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SNS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또한 기록물로서의 SNS에 관한 연구, SNS 기록 수집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등 몇몇 SNS 기록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통령의 SNS 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대통령이 생산한 SNS 기록물의 영향력과 의미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뒤 국내 현황분석을 통해 국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와 SNS 기록물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먼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연구

1) 카페트는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로, SNS를 활용한 정치를 일컬어 카페트 정치라 한다.

는 대통령기록물의 제도, 수집 및 분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영삼(2011)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록관리가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의 안정화와 발전이 법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해서는 제도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현정(2012)은 대통령기록물관리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 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은 대통령제라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선진 기록관리제도를 일부 채택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대통령기록관리 제도를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각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대통령기록물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오정희(2015)는 국내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계획이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집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집성고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대통령의 재임 및 재임 이전과 이후 시기의 기록물을 보완하기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이론적 개념과

사례를 조사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함가경(2012)은 기록의 가치를 업무활용성, 설명책임의무지원, 문화 활용성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 가치와 활용성이 대통령기록물에서 중요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치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가 기록 보존 측면의 기록물 정리 및 보존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기록 활용을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유형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활용의 바탕이 되는 정리분류체계를 확인해보고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유형 체계를 제시하였다.

정광훈, 남영준(2012)은 국가기록원 분류표가 정보탐색 및 접근에 취약하고 정보 분류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관리와 열람, 활용, 전시 등 대국민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기록물만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기록원 분류표의 주제별 분류원칙,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분류체계의 기능별 분류 원칙, 백악관 기록관리실 주제 파일의 분류체계에 근거한 하향식 분류체계(안)을 설계하였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SNS 기록물에 대한 연구는 SNS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 국가기록원 관련 트위터 이슈 분석, 공공기록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과 같은 연구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에 대한 연구와 SNS 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송주형(2014)은 참여와 공유, 소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웹 2.0의 정신을 구현하는 SNS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SNS의 다양한 기록학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공적, 사적으로 SNS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SNS를 의미 있는 기록으로 바라보고 이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SNS의 특성상 다른 전자기록보다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하고, 배경과 맥락이 잘 포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전자기록에 준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임다운(2017) 사회 구성원의 인식 확장과 관점의 변화 혹은 다양화를 위해 개인 일상 기록, 민간기록이자 시대상을 보여주는 기록으로써 SNS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정보와 기억을 담은 사회적 기록을 직접 생산하고 기록화 하는 일련의 기록 행위를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여 사건 관련 SNS 기록의 목적의식적 기록 수집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시대 사건에 관한 증거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SNS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당 주체 기관의 구체적인 수집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SNS 기록물에 관한 이상의 선행연구는 SNS 기록물의 기록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SNS 기록물의 기록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리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대상이 일반인이 생산한

SNS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이 생산한 SNS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활용한 정치 양상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SNS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및 유형을 통해 대통령의 SNS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대통령의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호주의 'PANDORA', 영국의 'UKGWA', 미국의 'Archive Social'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SNS 아카이브의 유형과 관리방안을 조사하였고, 국내 대통령의 SNS 기록물 관리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 근거와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SNS 기록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에 SNS 기록물을 포함하여 17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국내 웹 기록물 관리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넷째, 현재 운영 중인 전·현직 대통령의 SNS

기록물을 수집한 뒤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현직 대통령의 SNS 기록물의 내용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SNS 운영현황과 SNS 기록물의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SNS 정치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SNS는 이후 독일과 영국, 한국 등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현실정치와 선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으로 관심받기 시작했다(금혜성, 2011). 우리나라도 2012년 19대 대선에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이후 SNS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를 활용한 정치는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대선 당시 SNS를 활용한 전략으로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 당시 경쟁 상대보다 5~10%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각종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거전략으로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은 500만 명에 달하는 SNS 지지그룹으로 평가되었다(미디컴, 2012). 오바마의 SNS를 활용한 선거전략의 승리는 이후 정치인들이 더욱 활발한 SNS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SNS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냈다.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당시 트위터 팔로워가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트위터를 통해 거침없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도 페이스북에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손녀딸을 안고 있는 영상을 올리는 등 진솔한 모습을 SNS에 많이 노출하여 호감도를 개선하였다(중앙일보, 2016).

이처럼 SNS 정치는 정치인이 개인 SNS 계정을 만들어 의정활동을 홍보하던 것에서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SNS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직접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SNS는 직접 정치참여의 수단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 SNS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민심을 듣고 소통하는 창구로 삼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7).

정치인들이 SNS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추세는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이 기존 언론보다도 SNS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대통령의 생각을 담은 글 등 다양한 SNS 기록물을 생산하는 왕성한 SNS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도 과격하지만 짧고 명쾌한 문장의 메시지를 매일 몇 건씩 올리며 트위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한국경제, 2017).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행적이나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며 왕성한 SNS 사용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SNS 소통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 2017).

## 2.2 대통령기록물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력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 행위, 말과 기록들은 우리나라 국가 운영에 중요한 정보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들의 수집 필요성 대두되었다(정광훈, 남영준, 2012).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기록물의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의 목적은 대통령기록의 보존·활용을 통한 대통령의 공적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보장, 국민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중요한 역사기록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이다(조영삼, 201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생산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국민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과 같은 대통령 상징물 및 대통령 선물,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와 같은 개인기록물 등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즉,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을 보조하는 조직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그와 관련한 행정 박물을 모두 포함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유형은 성격에 따라 공적 기록물과 사적 기록물로 구분되며 그 매체는 문서, 시청각 기록물, 전자기록물과 상징물과 선물과 같은 박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 1>과 같다(오정희, 2015).

<표 1>을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전자기록물 범주로 웹 기록물, 데이터 세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NS 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 대통령부터 SNS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SNS 기록물이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SNS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은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에서 SNS 기록물을 포함하여 17대 대통령의 SNS 기록물의 이관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이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로 SNS 기록물을 포함한 것은 웹 기록물과 SNS 기록물 특성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웹 기록물은 조직의 활동 전반과 다양한 정보와 대통령별 국정 철학까지 담고 있어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책 등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관과 국민이 소통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2018).

〈표 1〉 대통령기록물의 유형별 구분

성격	생산기관	매체	예시
공적 기록물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문서	-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의 기획·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록 - 대통령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통화기록을 포함한 대화록, 연설문 및 말씀참고자료 등 - 대통령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 대통령의 영상 또는 음성인 비디오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사진, 필름, CD, DVD, 마이크로필름 등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	전자기록물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 기록물, 데이터세트
		대통령 선물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 되어 대통령 기관에 이관된 역대 대통령이 각국 수반 및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
		대통령 상징물	-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사적 기록물	대통령 개인	문서
시청각 기록물			- 대통령의 영상 또는 음성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사진, 필름, CD, DVD, 마이크로필름 등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
전자 기록물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데이터세트
개인 박물			-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개인 선물			- 그림, 휘호, 묵서, 도자기 등

출처: 오정희(2015),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 17 재편집.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웹 기록물의 역할을 SNS 기록물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웹 기록물이 사이트의 운영환경과 프로그램 등 정보기술의 변화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 기록물과 SNS 기록물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NS 기록물이 웹 기록물보다 휘발성이 더욱 강하고, 데이터의 양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웹 기록물의 관리지침에 따라 SNS 기록물을 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두 기록물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의 SNS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로 포함

하여 관리하는 상황이다.

### 3. 해외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사례조사 및 분석

현재 국내에서는 SNS 기록물에 관한 명확한 관리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나, 호주, 영국, 미국에서는 SNS 기록물을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아카이빙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웹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으로 웹 기록물의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소통 창구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며,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도 웹 기록물을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작용의 증거가 되는 기록이라 언급하며 수집·관리하고 있다. <표 2>는 현재 진행 중인 웹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해당 웹 아카이브에는 SNS 기록물을 아카이브 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각국의 수상과 대통령의 SNS 기록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호주,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재 대통령 SNS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Archive Social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를 사례조사 하였다.

### 3.1 호주 PANDORA

PANDORA는 호주의 웹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호주의 국립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 의해 1996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호주의 9개 도서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PANDORA의 수집대상은 호주의 모든 웹 기록물이 아닌 중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수집대상을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PANDORA, 2016). 현재 PANDORA는 호주 수상의 웹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전·현직 수상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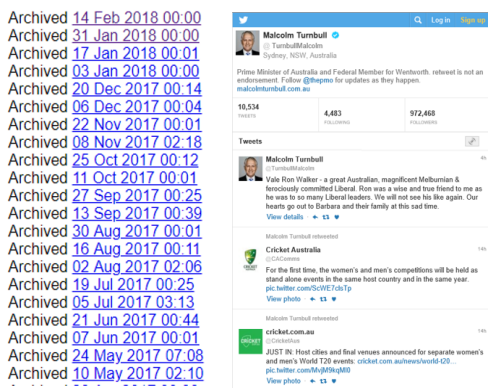
<표 2> 국내·외 웹 아카이빙 사례

기관	설명
Internet Arc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역사가, 연구자, 학자 등에게 장기적으로 이용시키는 디지털 도서관 표방</li> <li>- 2000년대 초부터 웹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웹 크롤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저장체계 분야에서 IIPC의 WARC의 기반이 되는 ARC포맷을 비롯한 아카이빙을 위한 다양한 포맷에 대한 연구 진행</li> <li>- WARC는 2009년 9월 ISO 28500 표준 선정</li> </ul>
호주 PANDO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의 온라인 출판물의 장기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호주국가도서관(NLA) 주도 아래 1996년부터 시작</li> <li>- 온라인 출판물로서 사회적, 지적, 문화적 자원으로 중요하고, 오래 보존할 가치가 판별된 것을 수집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접근방법 사용</li> </ul>
영국 UK Central Government Web Arc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NA(The National Archive) / 영국, 웨일즈 및 영국 중앙 정보의 공식 아카이브</li> <li>- 영국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과 활동, 정부 내 의사결정 프로세스, 왕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시민들의 상호작용 등 수집</li> <li>- 약 2,500개의 공공사이트 중 92개의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각각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사이트를 아카이빙</li> </ul>
미국 MINER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주도하고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와 협력하여 대통령선거, 911 테러, 이라크전쟁 등 특정 주제를 다루고, 일정한 선택기준을 만족시키며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수집</li> <li>- 사이트 권리 보유자와 특약협정을 맺고 공개조건을 개별적으로 설정</li> <li>- 주제적 선별 방법 사용</li> </ul>
한국 O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활용하고 후대에 교육 및 연구용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추진</li> <li>- 자료검색, 디지털자원기증·추천, 저작권관리 기능</li> <li>- 온라인디지털자원, 대학간행물, 전자저널 등 수집</li> </ul>

출처: 국가기록원 웹 아카이브(<http://web.archives.go.kr/example/example>) 재편집

트위터 계정 또한 수집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PANDORA는 <그림 1>과 같이 14일 주기로 전·현직 수상의 트위터 페이지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트위터 페이지 전체를 일괄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다.

PANDORA의 기록물 수집은 14일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SNS 기록이 최초 생성 이후에도 이용자의 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내용의 추가가 발생하거나, 생성된 기록물의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집 이후 해당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미흡하다. 현재 PANDORA는 수집된 트위터 페이지 전체를 단순히 보여주는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도구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즉, 이용자가 해당 SNS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기록물을 직접 일일이 확인하여 접근해야 하며, 해당 기록물에 접근한 이후에는 이용을 위한 2차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림 1> PANDORA - Turnbull Malcolm [twitter page]  
 (http://pandora.nla.gov.au/pan/99137/20180131-000/mobile.twitter.com/TurnbullMalcolm.html)  
 [검색일 2018.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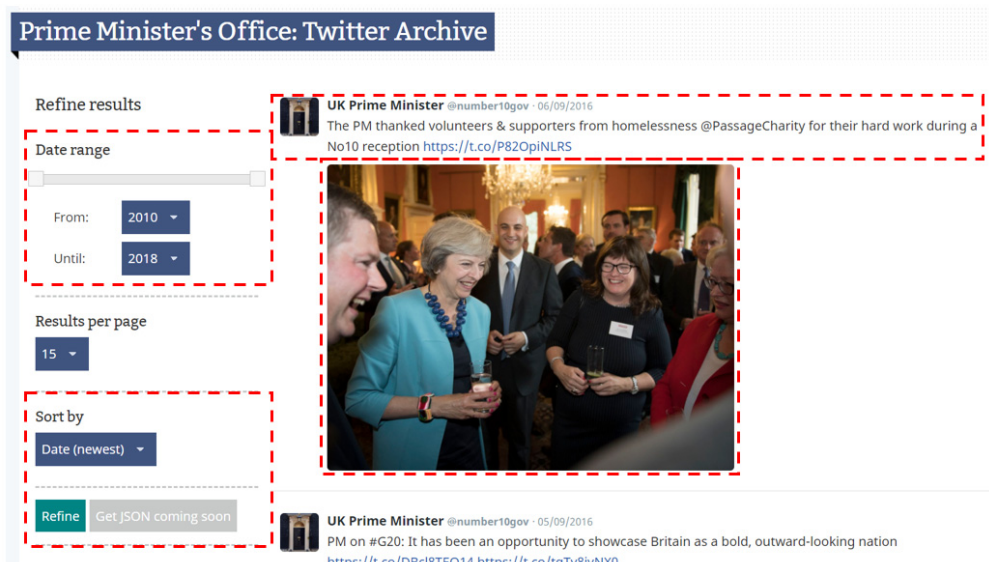
### 3.2 영국 UKGWA

영국의 국가기록원 '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의 기록선별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상호작용(The state's interaction with the lives of its citizens)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을 수집대상으로 명시한다(TNA, 2012). 이를 위해 TNA는 웹 기록물 아카이브 'UK Government Web Archive(이하 UKGWA)'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웹 페이지, 문서, 인터랙티브 게임 등 영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생산한 30억 건이 넘는 웹 기록물을 수집해왔다.

2014년, UKGWA는 소셜 미디어의 소통역할을 강조하며 트위터와 유튜브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TNA, 2014). 현재 이곳에서 관리 중인 트위터와 유튜브는 각 계정 단위로 보존되고 있으며, 영국 수상, 정부기관 및 런던 올림픽 공식 계정 등 총 80개의 트위터 계정, 56개의 유튜브 계정이 수집·관리되고 있다.

영국 수상의 SNS 관리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UKGWA의 아카이브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그러나 UKGWA는 기록물 검색을 위한 기간 설정 및 날짜별 정렬 기능 등 일반적인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SNS 기록물 관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키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UKGWA에서 관리하는 모든 SNS 기록물은 생산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기간 설정 및 날짜별 정렬 기능을 제외한 다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매일 갱신 가능한 SNS 기록물 특성상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UK Government Web Archive - Twitter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twitter/number10gov)  
 [검색일 2017. 12. 22.]

둘째,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 사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태의 데이터 제공 또한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실시간 수집이 되고 있지 않다. 현재 UKGWA에서 수집·관리 중인 SNS 기록물들은 모두 2016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UKGWA가 실시간 수집이 아닌 일정 간격을 두고 수집하고 있거나, 혹은 수집을 중단한 것을 의미한다. SNS 기록물이 웹 기록물의 한 종류로 휘발성을 갖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수집정책은 향후 SNS 기록물의 추가 손실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넷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순 생산 기록물만을 수집하여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없다. 본래 SNS란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하며 각각의 게시물 속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상호작용은 SNS 기록물이 다른 기록물과 차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UKGWA에서 수집한 SNS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댓글’, ‘좋아요’ 등 해당 기록물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SNS 기록물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수집정책이라 할 수 있다.

### 3.3 미국 Archive Social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관리 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의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하 NARA)’는 2013년 미국의 소셜 미디어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지침 및 모범

사례를 배포하며 기관의 소셜 미디어 기록물 수집을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보존 일정 수립을 제안하였다(NARA, 2013).

이후 2016년 10월, 미국 백악관은 행정부 간 원활한 이행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임을 언급하며, 디지털 이행이 이 노력의 핵심 요소임을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행을 위한 세 가지 목표를 밝혔다. 첫째, 정부에서 생산한 트윗(Tweet), 스냅(Snaps) 등의 온라인 자료를 NARA에 이관하는 것, 둘째, 이러한 온라인 이관 자료에 대한 실시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 셋째, 다음 정부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The Obama White House, 2016).

이러한 목표를 밝힘과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SNS 콘텐츠를 보존, 오픈하기 위한 독창적인 아카이브 활용방법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2017년 1월 이를 수행할 몇몇 프로젝트 그룹을 발표하였다. 이 중 주요 그룹은 'Archive Social', 'MIT Media Lab's', 'GIF search engine', 'Feel Train' 등으로 각각의 그룹이 수행하는 과업은 다음 <표 3>과 같다.

4개의 프로젝트 그룹 중 'Archive Social'은 미국의 민간 및 정부 기관이 공개기록법과 유사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민간 기업으로, 'Archive Social'의 최

대 고객은 NARA이다(The Washington Post, 2015). 'Archive Social'은 백악관의 SNS 아카이브 프로젝트 'The Obama White House Social Media Archive'를 진행 중이며, 현재 해당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화면은 <그림 3>, <그림 4>와 같고, 수집·관리 중인 자료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해당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현재 약 25만 건의 SNS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생성한 SNS 포스팅 이외에도 대통령, 백악관의 SNS 계정을 팔로우, 리트윗한 모든 SNS 포스팅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SNS 기록물은 유형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검색은 SNS 유형 및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며, 검색 결과는 SNS 유형, 생성 날짜, 검색 키워드 적합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수집된 각각의 기록물에 대하여 콘텐츠 종류, 작성 계정, 생성시간, 아카이브 형태, 소스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물의 전체 정보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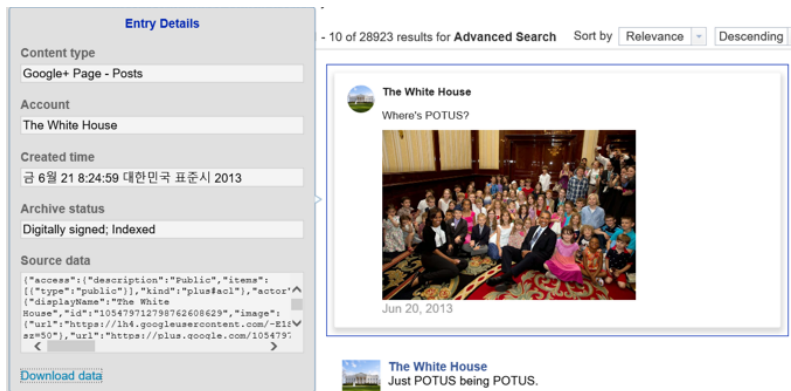
이처럼 미국의 소셜 미디어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수집, 검색, 이용 등 모든 요소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수집에 있어 생성 포스팅 이외에 연관된 모든 포스팅을 수집하는 것은

<표 3> 미국 오바마 정부 SNS 아카이브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룹	과업
Archive Social	소셜 미디어 아카이빙 시스템
MIT Media Lab's	트위터 샘플링 및 백악관 트윗이 행정부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GIF search engine	시민에게 백악관의 모든 GIF 및 Vine 컬렉션 제공
Feel Train	트위터 자동계정을 통해 향후 8년 동안 백악관의 트윗을 리트윗



〈그림 3〉 The Obama White House - Social Media Archive  
 (http://obamawhitehouse.gov.archivesocial.com/) [검색일 2017. 12. 22.]



〈그림 4〉 The Obama White House - Social Media Archive  
 (http://obamawhitehouse.gov.archivesocial.com/results?query.terms%5B0%5D.field=TEXT&query.terms%5B0%5D.text=potus/) [검색일 2017. 12. 22.]

〈표 4〉 Archive Social SNS 수집 및 관리현황

	All	Tweets	Timeline posts	Posts	Photos	Media	Pin
Twitter	227,652	227,652	-	-	-	-	-
Facebook	10,152	-	5,603	-	4,549	-	-
Flickr	6,910	-	-	-	6,910	-	-
Instagram	5,626	-	-	-	-	5,626	-
Google + page	1,796	-	-	1,796	-	-	-
Pinterest	388	-	-	-	-	-	388
합계	252,535	227,652	5,603	1,796	11,459	5,626	388

단순 개인 기록물의 수집이 아닌 광의의 의견 표현과 소통, 공유, 여론형성의 집단적 의사표출을 기록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

### 4.1 관리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담 방법은 전화 및 서면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 근거와 전반적인 관리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을 통해 대통령 SNS 기록물을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로 포함하여 이관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국내의 웹 기록물 관리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전·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을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현직 대통령의 SNS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 SNS 기록물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4.1.1 대통령기록관의 SNS 기록물 관리 현황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화 및 서면 면담을 총 3회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대통령기록물 유형에는 SNS 기록물을 포함하지 않아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SNS 기록물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통령 SNS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및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현재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업무 진행에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SNS 기록물의 범위, 수집방법, 수집대상 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절차에 따른 이슈들이 내부적으로 정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은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SNS 기록물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 중인 SNS 기록물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 청와대의 SNS 활동에 대한 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의 이관을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진행하였으며,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관받은 기록물은 청와대에서 운영한 SNS의 원본 데이터가 아닌 청와대가 생산한 SNS 기록물을 기반으로 제작한 자체 웹 페이지로 나타났다. 즉, 대통령기록관은 직접 SNS를 수집하여 관리한 것이 아닌 당시 청와대에서 SNS 활동을 콘텐츠화하여 제작한 웹 페이지를 그대로 이관받은 것이며, 해당 기록물에선 SNS 기록물에서 획득해야 할 상호작용 등의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웹 페이지 자체로서만 관리되고 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당시 생산된 SNS 기록물을 17대의 선례에

따라 이관하였다. 18대의 경우 17대와는 달리 SNS 자체를 이관받아 당시의 SNS 기록물 자체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상호작용 요소 까지 포함하였다. 현재 17대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SNS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 웹 사이트의 '미디어 채널'이라는 메뉴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18대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서비스를 위한 준비 중이다. 향후 18대의 SNS 기록물은 현재 서비스 중인 17대 SNS 기록물 서비스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웹 페이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17대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SNS 기록물 자체를 수집 및 관리한 것은 18대 대통령 임기 중 생산한 기록물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관작업이 시작되면 TF팀 형태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업무를 진행하지만, 수집에 관한 기술이 요구되고 작업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업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 것은 SNS 기록물 수집 주기가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까지를 기준으로 5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SNS를 딥 아카이빙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후속 서비스를 위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수집된 SNS 기록물은 보존본과 서비스본 두 가지 형태로 관리되는데, 보존본의 경우 SNS 운영 당시의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개인 정보나 비속어·욕설 등을 제거하고 로그인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정제작업을 거친다.

대통령 SNS 기록물 관련 정책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웹 기록물의 경우 공공자산으로 운영되어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SNS는 상용 플랫폼이어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제약이 있어 향후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이관받은 SNS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통령 개인 SNS 계정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담당자는 18대 이관작업 당시 내부적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며, 대통령 개인 SNS 계정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자와의 면담 이후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 중인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OAIS 웹 아카이브 현황조사 및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OAIS 웹 아카이브와 대통령기록관 모두 대통령 SNS와 관련한 수집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담당자와 진행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웹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2003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청와대 홈페이지를 기점으로 이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대통령 웹 기록물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웹 기록물 등 다양한 웹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나타난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수집현황은 <표 5>와 같다(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2018).

현재 관리 중인 대통령 웹 기록물은 대통령

〈표 5〉 대통령기록관 웹 기록물 수집현황

(단위: 홈페이지)

수집대상(사이트)	당선인	인수위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기타
김영삼	-	-	1	-	1	-
김대중	-	-	1	-	7	-
노무현	1 (인수위)	-	1	1	22	2
이명박	-	1	2	1	19	1
박근혜	1	1	-	-	-	-
합계	2	2	5	2	49	3

기록물 생산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수집대상으로 하며 대통령 임기를 수집범위로 하였다. 수집된 웹 기록물은 당선인, 인수위,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기타 총 6개 분류로 나뉘는데, 주로 대통령 자문을 위한 웹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마다 모두 그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이 관리 중인 웹 기록물 중 대통령 본인의 SNS에 관련한 기록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선인 웹 사이트 또한 당선인의 직접적인 활동이 아닌 홍보

의 목적으로 활용된 웹 사이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보존 '청와대 미디어'의 경우, 청와대에서 운영한 SNS 계정의 활동이 웹 기록물로서 수집·보존되어 있었다. 해당 SNS 기록물은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한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게시물로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SNS 유형별로 각각 분류되어, 연도별로 생성한 게시글을 이용자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17대 대통령 웹 기록물 '청와대 미디어'와 제공되는 SNS 기록물  
(http://17c wd.pa.go.kr/kr/index.php) [검색일 2018. 3. 21.]

4.1.2 대통령 SNS 운영현황

대통령의 SNS 운영현황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을 직접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 운영 중인 모든 유형의 SNS 계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와대의 SNS 계정은 대통령과 관련된 직속 행정기구이고,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수집·관리 중인 SNS 기록물임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조사 결과, 전·현직 대통령이 운영 중인 SNS 유형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SNS 유형을 고려하여 웹 크롤러를 통해 수집을 진행하였다.

'페이스북'의 경우 대표적인 오픈소스 통계/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 언어인 R의 'Rfaceboo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트위터'의 경우 Python의 'BeautifulSoup', 'selenium'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직접 웹 페이지 크

롤러를 제작하였다. 나머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의 경우 수집의 제한사항에 의하여 직접 수집을 진행하였다. 수집범위는 SNS 게시물과 게시물에 포함된 '댓글', '좋아요' 등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집요소를 포함하였다.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수집요소는 트위터는 '댓글', '좋아요', '리트윗'의 빈도, 페이스북은 '좋아요', '댓글', '공유'의 빈도, 인스타그램의 경우 '팔로워'의 빈도에 해당하며, 수집 기간은 각 SNS 계정의 생성일로부터 수집이 진행된 2018년 2월 28일을 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집결과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SNS를 운영 중이었다. 이 중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SNS 계정은 임기 중 생성된 것이 아닌, 임기 이후 '노무현재단'에서 생성·운영한 것으로, 당사자가 운영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의 SNS 운영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전·현직 대통령 SNS 운영현황

(단위: 건)

	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be	Blog
이명박	303			-			-	-	1,400
	좋아요	댓글	공유	좋아요	댓글	리트윗			
	1,529,488	196,763	21,731						
박근혜	111			471			-	-	-
	좋아요	댓글	공유	좋아요	댓글	리트윗			
	608,977	146,650	32,316	24,542	33,023	112,264			
문재인 (당선이후)	1,903(103)			2,501(129)			437(18)	490(7)	2,419(4)
	좋아요	댓글	공유	좋아요	댓글	리트윗	팔로워		
	8,959,226 (1,421,256)	711,760 (93,948)	328,578 (65,947)	2,013,888 (921,963)	278,604 (65,133)	2,676,048 (778,709)	506,967		
청와대	851			1,192			36	92	-
	좋아요	댓글	공유	좋아요	댓글	리트윗			
	958,090	108,944	91,546	1,224,486	50,687	1,189,293			

전·현직 대통령의 SNS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블로그만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는 임기 중 정책홍보, 개인 의견, 보도자료 해명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임기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정을 운영하며 지지자들과의 소통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적극적인 SNS 활동을 보였으며, 시민과의 상호작용 또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였으며, 17대 이명박,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SNS 활동과 비교하여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SNS의 내용은 본인 및 정책홍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SNS 계정은 탄핵안 가결 이후 활동을 멈춘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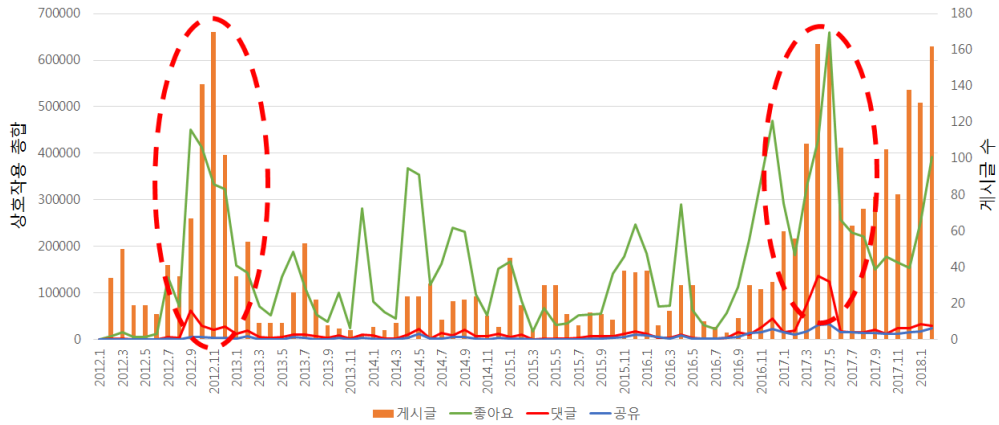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어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SNS 유형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NS 활동 역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의 SNS 활동을 모두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시민과의 상호작용 또한 5배 이상 많았다. 또한 당선 이후에도 지속해서 왕성한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선 이후 SNS 유형별 활동은 페이스북 103건, 트위터 129건, 인스타그램 18건, 유튜브 7건, 블로그 4건으로 모든 유형의 SNS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상호작용은 전체 상호작용의 약 20%가 당선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청와대의 경우 이전 청와대 SNS 계정이 18대 대통령 탄핵 이후 모두 정지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SNS 계정은 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생성된 새로운 계정들이다. 즉 모두 19대 대통령 임기 이후에 생성된 계정들이며, 짧은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청와대의 일정, 다양한 이벤트, 대통령 행사 관련 홍보 등과 관련한 게시글을 생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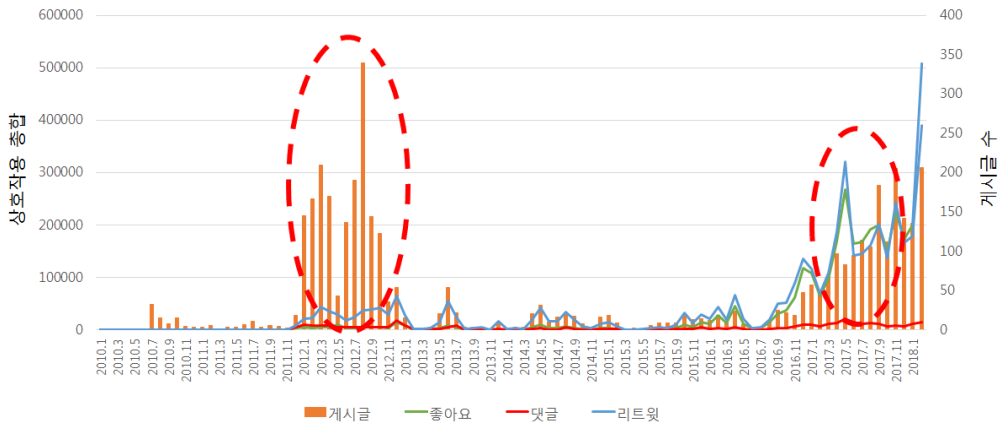
〈그림 6〉과 〈그림 7〉은 전·현직 대통령의 SNS 유형 중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의 운영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두 그래프의 우측 세로축은 해당 기간에 게시된 SNS 기록물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었다. 반면 좌측 세로축은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상호작용의 총합을 나타내며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되었다.

수집한 전·현직 대통령의 SNS를 분석한 결과, SNS 활동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시민과의 상호작용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SNS 모두 공통적으로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2012년과 2017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데, 이는 상기 1.1절에서 언급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카페트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8대 대선부터 SNS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전·현직 대통령 SNS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현직 대통령의 SNS 활동은 그 활동의 범위가 임기 전·중·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대 대



〈그림 6〉 대통령 SNS(페이스북) 운영추이



〈그림 7〉 대통령 SNS(트위터) 운영추이

통령과 청와대의 경우 임기 이후 총 2,432개의 새로운 게시글이 생성되었으며, 이렇게 생성된 게시글에 대한 시민과의 상호작용은 6,970,002 건에 이른다. 임기가 아직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임기 말에는 약 1만 5천 건의 게시글과 4천만 건의 상호작용 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많은 양의 기록물이 생산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4.2 문제점

해외 사례 및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 현황과 국내 전·현직 대통령 SNS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대통령 SNS의 활동은 점점 더 활발히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나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유일한 대통령 관련 SNS 기록물 서비스인 '청와대 미디어'는 SNS 기록물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 '청와대 미디어'는 당시 청와대의 SNS 활동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는 트위터를 제외하면 다른 SNS의 경우 연도별 검색 이외에 특별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 작성자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하며, 원하는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해당 기록물에 일일이 접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각각의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록물을 단순 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2차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단순 생성 기록물만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어 각 기록물이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SNS 기록물은 생성 이후에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며, 이러한 정보를 모두 획득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수집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청와대 미디어'의 경우 수집이 종료되어 추가 수집이 진행되지 않아 수집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는 대통령 SNS 기록물 서비스인 '청와대 미디어'는 당시 생성된 SNS 게시물을 특정 목적에 맞게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는 되고 있지 않고 이용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내포

한 '청와대 미디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요소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영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는 '청와대 미디어'가 원본 기록물이 아닌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콘텐츠화한 웹 사이트 메뉴의 일부이기 때문이며, 원본 데이터가 아닌 웹 페이지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웹 페이지 형태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해당 기록물과 관계가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둘째, SNS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SNS 기록물은 웹 페이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자 기록물의 일종이므로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로 볼 수 있다.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현재 대통령 SNS 기록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웹 기록물의 범주로 SNS를 포함하여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 기록물과 같은 전자기록물은 우선 선별과정을 거친 뒤 수집정책에 의해 수집되고 보존을 위한 처리 과정을 거쳐 저장·보존된다. 보존된 기록물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아카이빙 당시 모습을 재현한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SNS 기록물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가장 우선되는 선별과정부터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집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SNS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서 수집·관리하는 SNS 기록물은 웹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할 수밖에 상황이다. 웹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은 '2018년도 정부산하기관 기록물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웹 기록물

항목	내 용
정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 웹사이트를 통해서 게재되거나 전송되는 모든 문서나 데이터
필요성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기관의 홍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절차의 개선,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 웹 아카이빙은 World Wide Web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집하여 웹 기록물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후대의 학자, 일반 대중을 위해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수집대상	페이지(한시)기관 웹 사이트 주요 국가 행사, 사건·사고 관련 웹 사이트 등
수집방식	온라인 원격 수집(웹 수집 로봇(crawler) 이용)
수집범위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웹사이트 URL 주소 이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집
수집주기	수집 대상 기관에 한하여 해당 연도 1회 페이지(한시)기관은 페이지 약 3개월 전부터 1회 이상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 시 해당 기관 웹사이트 일괄 수집

출처: 국가기록원,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재편집

해당 지침은 웹 기록물에 대하여 정의부터 필요성, 수집대상, 방식, 범위, 주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웹 기록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집에 있어 SNS 기록물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못하다. 우선, 수집대상을 ‘페이지(한시)기관 웹 사이트’, ‘주요 국가 행사, 사건·사고 관련 웹 사이트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집대상에 SNS 기록물을 포함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다. SNS 플랫폼은 웹 사이트 형태로 제공되나 페이지(한시)기관이라 볼 수 없으며, 주요 국가 행사, 사건·사고에 관련한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침은 웹 게시글에 한정되어 있어 현재 빠르게 생성·소비되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황분석 결과 국내 전·현직 대통령의 SNS는 평균 하루 한 건 이상의 게시글을 생성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은 기간이 36일로 현재 전·현직 대통령의 SNS 활동이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선 ‘수집대상 기관에 한하여 해당 연도 1회’, ‘3개월 전부터 1회 이상’, ‘일괄 수집’ 등 SNS 기록물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집주기를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NS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재는 SNS 기록물이 갖는 휘발성 및 유동성을 고려할 때 치명적이다. 웹 기록물은 그 특성상 내용의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기록물 자체가 사라지거나, 접근할 수 없어지는 등 해당 기록물이 진본성을 유지한 채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웹 기록물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SNS 기록물의 관리 부재는 상기 언급한 문제점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와대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토티 등 다양한 SNS 계정을 운영하였으나,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서비스가 정지되었으며, 해당 SNS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졌다(KBS, 2017(〈표 8〉 참조)).

〈표 8〉 이전 정권 청와대 SNS 계정 운영현황

SNS 유형	개설년도	내 용	현황
트위터	2010	*55만여 개의 '좋아요'	폐지
페이스북	2010	*31만여 명의 '팔로워'	비공개
유튜브	2013	5,375 명의 '구독자'	운영정지
카카오토티	2013	419,466명의 '소식 받는 사람', 924개의 게시글	보존

\* 현재 접근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 파악 불가

또한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청와대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이 모두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 또한 청와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은 계정이 삭제되진 않았지만 존재하던 게시글과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 2010년 처음 개설된 청와대 SNS 계정에는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식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소식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SNS 계정 및 게시글의 무단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등(김도균, 2017) 여러 논란을 야기하였다. 대통령 SNS 기록물이 갖는 기록학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SNS 기록물의 휘발성 및 유동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무단 삭제 및 접근 불가 등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선 해당 SNS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5. 대통령 SNS 기록물 수집 및 관리방안 제안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해외 SNS 기록관리 사례, 국내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과 전·현직 대통령

들의 SNS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해외의 경우 호주, 영국, 미국에서는 각국의 수상, 대통령의 SNS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SNS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또한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SNS 기록물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제도적 측면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SNS 기록물을 웹 기록물의 넓은 범주로 포함하여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SNS 기록물 관련 서비스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는 현재 별도의 SNS 기록물 관리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웹 기록물 관리지침을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SNS 기록물은 웹 기록물에 비해 더욱 전자기록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기록물의 망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기록이 삭제되거나 SNS 계정이 삭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

도의 수립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중이라는 것을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도 생산되고, 소실되는 SNS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은 하루빨리 SNS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고 SNS 기록물에 대비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리지침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5.1 수집방안 제안

SNS 기록물은 해당 계정이 생산한 모든 SNS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SNS 기록물은 이와 차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대통령의 SNS는 재임 전·중·후 모두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때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외의 기간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생산하는 SNS 기록물은 대통령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 중 생산된 SNS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으며 일괄 수집되어야 하지만, 재임 기간 전·후 생

성된 기록물들은 개인기록물로서 별도의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생산된 SNS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재임 기간 전·후로 생산된 SNS 기록물은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분류하는 등 기간을 명확히 분류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선례로 미국의 사례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는 고유 SNS 계정을 운영하며, 이후 재임 기간이 끝나면 'POTUS44' 등 역대 몇 번째 대통령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받으며, 'POTUS' 계정은 팔로워를 제외한 모든 게시글이 초기화되어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된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의 임기 동안 사용하는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을 운영해야 하며, 임기 전·중·후에 따라 구분된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되면 국가에서 공식적인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을 인계받아 해당 계정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임기가 끝나면 해당 계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하는 형태의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SNS 계정 운영방법은 SNS 계정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수집대상 및 범위를 한정시키는 편의를 제공하고, 고유계정으로 인해 시민참여가 더욱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SNS 플랫폼별 대통령의 고유계정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플랫폼별 수집 도구를 명확히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SNS 기록물에 대한 명확한 수집방법, 수집범위를 선정하여 인력 및 비용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8>은 재



〈그림 8〉 재임기간 중 대통령 전용 SNS 계정 운영방안

임 기간 중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의 운영방안으로, 대통령의 임기 전·중·후에 따른 SNS 계정 운영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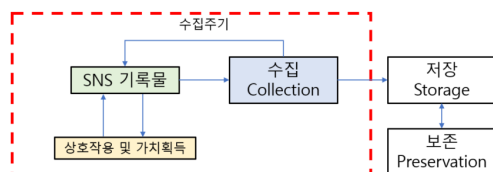
또한 SNS 기록물은 생성 이후 반복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는 SNS 기록물과 유사한 웹 기록물이 갖는 핵심적인 특징에 기인한다. 웹 기록물은 생성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추가 정보를 획득하며, 이러한 정보는 생성된 기록물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뤄진 정보들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웹 기록물의 특징을 근거로 웹 기록물을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소통 창구라 언급하고 있으며 호주 NAA 영국 TNA, 미국 NARA 등 해외의 국가기록보존소 또한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작용 증거가 되는 기록이라 언급하고 있다. 즉, SNS 기록물은 생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1차 수집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SNS 기록물이 타인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했을 때 전문가에 의한 2차 수집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주형, 2014).

이처럼 수집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동시에 수집되는 내용은 SNS 기록물이 갖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기록물과 연관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SNS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각각 다른 수집요소를

가지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SNS 유형별 수집 도구를 운영해야 한다. 호주의 PANDORA가 이러한 주기적 수집 및 포괄적 수집의 모범사례로, 해당 웹 아카이브는 각각의 SNS 기록물에 연관된 주변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주마다 주기적으로 수집된다. 특히 수집하는 SNS 기록물을 수집주기마다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록물이더라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SNS 기록물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웹 기록물 수집주기는 기간이 길고, 수집대상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SNS 기록물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의 SNS 수집은 5년간의 자료를 한 번에 이관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SNS 기록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 SNS 기록물의 수집을 위한 지침은 수집할 SNS 기록물 이외에도 해당 기록물에 연관된 상호작용 정보를 모두 획득함과 동시에 SNS 기록물에 적합한 수집주기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수집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수집주기는 게시물 생성, 상호작용 발생 등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수집주기가 짧을수록 수집을 위한 비용

이 감소하며, 당시의 상황을 가장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시 수집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 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 SNS 기록물에 적합한 수집주기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9>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통령 SNS 기록물 수집 모델로서, SNS 기록물은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추가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며, SNS 기록물의 수집은 이러한 상호작용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집 및 저장이 이뤄져야 한다.



<그림 9> 대통령 SNS 기록물 수집 모델(안)

## 5.2 관리방안 제언

향후 원활한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를 위해선 먼저 SNS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시스템적 관리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수집된 SNS 기록물의 경우 5년의 임기가 끝난 뒤 한 번에 수집하고 있으며, 담당 관리자가 있으나 인력 및 기술적 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로 외부에 용역사업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5.1장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SNS 기록물은 그 특성상 수집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집된 기록물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미국의 정보통신 회사 Cisco가 발

표한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IP 트래픽은 3배,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7배 증가한다 (Cisco, 2017). 이처럼 결국 SNS 기록물의 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렇게 증가한 SNS 기록물의 양은 관리에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추가적인 상호작용 정보가 반복 수집 되는 SNS 기록물 특성상 그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SNS 기록물을 보존본, 서비스본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대통령 SNS 기록물의 수집을 외부 용역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대통령 SNS 기록물의 수집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점과 SNS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SNS 기록물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담당자와 진행한 면담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SNS 기록물의 수집을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술 자원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부재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SNS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IT기술의 지원과 전문 인력의 확충 및 기술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SNS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가 개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SNS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대통령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SNS 플랫폼의 유형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운영 중인 SNS 플

랫폼이 이후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게 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SNS 플랫폼은 모두 사기업에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에 표현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은 모두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SNS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기 이전에 SNS 플랫폼의 분류 및 수집 유형에 따른 메타데이터 요소 선정, 향후 재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기술 등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SNS 기록물을 서비스본과 보존본 두 형태로 구분하여 보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의 보존 형태에 맞는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 5.3 서비스 방안

수집 이후 관리되는 대통령 SNS 기록물은 더 나아가 이용을 위한 적절한 검색도구를 제공하여 기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검색 도구의 경우, SNS 기록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기록물 특성상 내용이 구어체의 형태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형식 또한 문자, 이미지, 영상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용자를 위한 검색도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많은 검색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영국과 호주의 경우 시간대에 의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SNS 플랫폼별 키워드 검색 및 SNS 계정을 통한 송신자, 수신자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의 검색기능은 SNS 기록물의 검색에 있어 모두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 이외에 SNS 기록물이 당대

사회현상의 증거적 가치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제별 검색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대통령 SNS 기록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 SNS 기록물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SNS 기록물을 활용한 2차 분석은 다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트윗이 행정부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SN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SNS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기록물 유형, 계정, 생성시간, 아카이브 상태,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소스 데이터의 경우 기록물의 계정, 내용 등 전반적인 정보 이외에 언어정보, 위치정보, 관계정보 등 해당 데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으며 다양한 분석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SNS 기록물을 구성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 SNS 기록물이 차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분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분석, 대통령기록관 담당자와의 면담, 국내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재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집, 관리, 서비스 측면에서 제안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 제안모형

## 6.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의 대통령 SNS 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기록물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례조사 및 분석을 위해 호주, 영국, 미국의 수상과 대통령의 SNS 아카이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대통령 SNS 기록물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와 전화 및 서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의 내용을 기반으로 SNS 기록물과 유사한 웹 기록물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대통령의 SNS 기록물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의 SNS 계정을 직접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수집, 관리,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 SNS 기록물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SNS 기록물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관리지침은 현재 없는 상황으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지침 및 법적 근거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및 논의 중인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SNS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 SNS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SNS 기록물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도, 대통령 SNS 기록물에 관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지침 제정의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리방안이 수집 및 관리방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였다는 점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

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또한 SNS별 유형과 특징을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방향

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통령의 SNS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SNS 기록물 관리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8).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대전: 국가기록원
- 금혜성 (2011). 정치인의 SNS 활용. 한국정당학회보, 10(2), 189-220.
- 김현정 (2012). 대통령기록관리제도 비교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9호).
- 송주형 (2014).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 연구. 기록학연구, 39, 101-138.
- 오정희(2015).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임다은 (2017). SNS 기록의 수집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정광훈, 남영준 (2012). 주제 및 기능을 고려한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제안.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1-165.
- 조영삼 (2011).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함가경 (2012).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유형 분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 Cisco (2017).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6-2021.
- U.K. The National Archives (2012). Records collection policy.
-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3). Best Practices for the Capture of Social Media Records.

### [ 기사 ]

- 김경은 (2017). 대통령의 'SNS 정치', 팔로워 160만과 3850만의 차이는? 아시아경제. 검색일자: 2018. 4. 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815240304296>
- 김도균 (2017). 자꾸 사라지는 기록들 ... '대통령 기록물' 훼손 논란. SBS뉴스. 검색일자: 2018. 4. 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9671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96714)
- 김재득 (2017). 문재인 대통령 'SNS 소통정치' 지속... 퍼스트킷·독과 청와대생활 등. 중앙일보. 검색일

- 자: 2018. 4. 4. <http://news.joins.com/article/21615425>
- 박지영 (2017). 'SNS 정치 "소통·참여 긍정적" vs. "악성 루머 부작용"'. 파이낸셜 뉴스. 검색일자: 2018. 4. 4. <http://www.fnnews.com/news/201702051703516751>
- 이미아 (2017). 'SNS 정치 100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국경제. 검색일자: 2018. 4. 4.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08319108i&category=AA021&isSocialNetworkingService=yes>
- 이상렬 (2016). 미국 대선의 SNS 전쟁. 중앙일보. 검색일자: 2017. 4. 4. <http://news.joins.com/article/19438940>
- KBS (2017). 대통령 떠난 청와대 ... SNS 계정도 흠피도 모두 '정지'. KBS NEWS. 검색일자: 2018. 4. 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4354>
- The Washington Post (2015). This start-up is helping the government keep track of social media.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on-it/this-start-up-is-helping-the-government-keep-track-of-social-media/2015/05/22/6107392e-fe4b-11e4-8b6c-0dcce21e223d\\_story.html?utm\\_term=.1c53835afdc0](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on-it/this-start-up-is-helping-the-government-keep-track-of-social-media/2015/05/22/6107392e-fe4b-11e4-8b6c-0dcce21e223d_story.html?utm_term=.1c53835afdc0)

#### [ 웹사이트 ]

- 국가기록원 웹 아카이브. 국내·외 사례. 검색일자: 2018. 2. 28. <http://web.archives.go.kr/example/example>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8. 4. 2. <http://pa.go.kr/portal/webSite/webSite01.do/>
- 미디어 (2012). SNS 여론조사 정확성 검증, 미국도 'SNS 대선'. PR이슈 제62호. 검색일자: 2018. 2. 28. [http://medicmpr.co.kr/nnew/content/prissue\\_view.asp?P\\_IDX=810](http://medicmpr.co.kr/nnew/content/prissue_view.asp?P_IDX=810)
-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2017). 백악관, 오바마 정부의 SNS 콘텐츠 아카이브 프로젝트 발표. 검색일자: 2018. 2. 28. [http://icon.ndsl.kr/i\\_trend/icon\\_briefDetail.jsp?record\\_no=5747&trendType=O](http://icon.ndsl.kr/i_trend/icon_briefDetail.jsp?record_no=5747&trendType=O)
- 청와대 미디어. 검색일자: 2017.12.22. <http://17c wd.pa.go.kr/kr/index.php>
- PANDORA (2016). SELLECTION GUIDELINES. Retrieved February 28, 2018, from <http://pandora.nla.gov.au/guidelines.html/>
- PANDORA (2018). Turnbull Malcolm[twitter page]. Retrieved February 14, 2018, from <http://pandora.nla.gov.au/tep/99137>
- The National Archives (2014). UK Government Web Archive captures official tweets and videos. Retrieved February 28, 2018, from <http://www.nationalarchives.gov.uk/webarchive/>

The Obama White House (2016). The Digital Transition: How the Presidential Transition Works in the Social Media Age. Retrieved February 28, 2018, fr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6/10/31/digital-transition-how-presidential-transition-works-social-media-age>

The Obama White House (2017). Social Media Archive. Retrieved December 22, 2017, from <http://obamawhitehouse.gov.archivesocial.com/>

UK Government Web Archive. Retrieved December 22, 2017, from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twitter/number10gov>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Act No. 10009.

Ham, Ga-Kyung (2012).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at the Presidential Archives. Master's thesis. Sookmyo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ung, Kwang-Hun & Nam, Young-Joon (2012).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according to Subjects and Functions.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1-165.

Kim, Hyun-Jeong (2012). Formation of Presidential Libra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Lesson for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rchival Studies.

Kum, Heisung (2011). Utilization of SNS in Congress: Twitter as a Political Communication Mechanism.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0(2), 189-220.

Lim, Da-Eun (2017). Study on the acquisition methods for the SNS records: focusing on the records of Twitter about 'Gangnam station murder cas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Information and Archival Scien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8).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ment in 2018.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Oh, Jung Hee (2015). A Study of the Us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Song, Zoo-Hyung (2014). A Study on SNS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101-138.

Zoh, Young-Sam (2011). A study on presidential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 Article ]**

KBS (2017). President left Blue House ... SNS account and homepage are all 'stop'. KBS NEWS.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4354>

Kim, Do Kyoon (2017). Records that disappear constantly ... Controversy over 'Presidential Record'.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9671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96714)

Kim, Jae Deuk (2017). Moon Jae-in Presents 'SNS Communication Politics' Continues... First Cat&Dog and Blue House Life.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1615425>

Kim, Kyung Eun (2017). The president's 'SNS politic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ollowers 1.6 million and 38.5 million? The Asia Business Daily.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815240304296>

Lee, Mi Young (2017). 'SNS Politics Expert' Trump President's Twitter. The Korea Economic Daily.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08319108i&category=AA021&isSocialNetworkingService=yes>

Lee, Sang Ryeol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War. JoongAng Ilbo.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news.joins.com/article/19438940>

Park, Ji Young (2017). SNS Politics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Positive" vs. "Side effects of malicious rumors". Financial News. Retrieved April 4, 2018, from <http://www.fnnews.com/news/201702051703516751>

**[ Website ]**

I-CON (2017). the White House Announces SNS Content Archive Project by Obama Government. Retrieved February 28, 2018, from [http://icon.ndsl.kr/i\\_trend/icon\\_briefDetail.jsp?record\\_no=5747&trendType=O](http://icon.ndsl.kr/i_trend/icon_briefDetail.jsp?record_no=5747&trendType=O)

Medicom (2012). SNS survey accuracy verification, U.S. also Presidential Election, PR Issue No. 62. Retrieved February 28, 2018, from

[http://medicompr.co.kr/nnew/content/prissue\\_view.asp?P\\_IDX=810](http://medicompr.co.kr/nnew/content/prissue_view.asp?P_IDX=810)

Presidential Archive Home Page. Retrieved April 2, 2018, from

<http://pa.go.kr/portal/webSite/webSite01.do/>

The Blue House Media. December 22, 2017, from <http://17c wd.pa.go.kr/kr/index.php>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 Archive. Domestic and foreign cases [Web Page]. Retrieved

February 28, 2018, from <http://web.archives.go.kr/example/example>